

심판진 황당 실수에...광주FC '억울한 몰수패'

제주전서 2명 교체하려하자 대기심 "나중에 한명 추가 교체해도 된다" 네번째 교체했다 횡수 위반으로 0-3 패 결정...졸지에 3연패 늪 빠져

갑 갑 바쁜 광주FC가 억울한 몰수패로 졸지에 3연패를 당했다. 광주에는 악몽의 1주일이 됐다. 광주는 18일 제주전에 이어 21일 전북과 홈경기를 치렀고, 25일에는 울산 원정에 나섰다. '우승후보' 전북과 울산을 연달아 만나 패한 광주는 앞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제주전이 0-3 몰수패로 정정되면서 3연패 늪에 빠졌다. 광주는 '울스타 군단'인 전북과 울산을 상대로 투혼의 승부를 펼쳤지만 높은 벽을 실감했다. 전북전에서는 1-1로 맞선 후반 막판 골키퍼 윤영국의 아쉬운 실수로 실점하며 1-2패. 울산전에서는 윤영국이 앞선 실수를 만회하는 선방쇼를 펼치며 이동준의 페널티킥도 저지했지만 후반 4분 손슬뜸 없이 이동준의 헤더가 광주 골대를 뚫었다. 광주는 울산의 17개의 슈팅을 1실점으로 막으며 분전했지만 끝내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고 패했다. 최선을 다한 승부에도 프로의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했던 광주, 하지만 앞선 제주전 몰수패는 속이 탄다. 이날 광주가 1-0으로 앞선 후반 45분 페널티지역

에서 이뤄진 제주 페르소의 슈팅이 이지훈에게 맞았고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다. 이어 주민규의 페널티킥 골로 광주는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리고 심판진의 황당한 실수에 승점을 날렸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18일 광주 대 제주 경기의 결과를 1-1 무승부에서 광주의 0-3 패배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선수교체 횡수 위반이 이유였다. 이날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김원식을 빼고 여봉훈을 넣었다. 후반 8분에는 이민기를 두 번째 교체 멤버로 투입했다. 그리고 김호영 감독은 후반 막판 세 번째 교체 카드로 김종우와 김봉진을 대기시켰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리그 일정 변화에 맞춰 올 시즌 K리그1은 3회, 최대 5명의 교체가 가능하다. 김종우와 김봉진이 대기심 앞에서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김호영 감독은 두 명을 교체하겠다고 두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심은 "나중에 한 명을 추가로 더 교체해도 된다"며 광주를 막았다. 결국 후반 39분 김종우가 먼저 들어갔고, 승부가 1-1 원점으로 돌아간

뒤 후반 47분 김봉진이 투입됐다. 연맹은 "광주는 경기 중 허용되는 선수 교체 횡수 3회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후반 47분 김봉진을 교체 투입했다. 이는 대회 요강에서 정한 선수 교체 횡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교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등을 제출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연맹은 "대기심의 실수라는 요인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대회요강에 따라 광주의 0-3 패배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기 관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은 경기에 참가하는 팀에 있다"며 "특히 선수 교체 횡수는 '상대팀과 동등한 조건'이라는 기본 원칙에 해당하고,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기는 완결된 경기라고 할 수 없다. 책임은 이를 야기한 팀에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광주의 몰수패를 선언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기 상황 속 광주는 규정대로 교체를 준비했지만 자격 미달의 심판진 탓에 '원칙을 깬' 구단이 되고 말았다. 연맹의 이야기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득을 본 것도 없다. 오히려 계획대로 선수 교체를 하지 못했고,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연맹은 "심판 배정과 평가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해당 감독관의 K리그 경기 배정을 무기한 중단하



광주가 지난 18일 열린 제주전 선수교체 횡수 위반으로 몰수패를 당했다. 사진은 문제의 교체 장면. 김종우와 김봉진을 동시에 준비시킨 김호영 감독(왼쪽)이 손가락으로 2명을 교체하겠다는 표시를 하고 있다. <광주FC 팬 제공 영상 캡처>

기로 했다"고 심판진의 책임도 물었지만, 광주에는 어떤 위안도 되지 못하는 조지다. 이날 심판진은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도 지적을 받았다. 이한도가 김오규의 팔꿈치에 맞아 이가 부러졌지

만, 파울 선언조차 없었다. 선수 교체 상황에서도 주심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등 심판이 지배한 경기 탓에 광주는 '강등권'에서 에타는 가을을 보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핸드볼 아시아선수권 5연패

일본 9골 차로 꺾고 우승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 5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26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 결승에서 33-24로 이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2년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5회 연속 아시아선수권 정상 자리를 지키며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한국 여자핸드볼이 아시아선수권에서 5회 연속 우승한 것은 1987년 1회 대회부터 2000년 8연패를 달성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18차례 아시아선수권 가운데 1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날 전반 종료 8분여를 남겼을 때까지 11-12로 끌려가며 고전했다. 그러나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를 뒤집어 전반을 18-14로 앞선 가운데 마쳤다. 후반 들어서는 한국은 점수 차를 더욱 벌리며 일

본과 상대 전적 16연승의 절대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은 2010년 아시아선수권 22-22 무승부 이후 일본과 16차례 만나 16번 모두 이겼다. 올해 도쿄올림픽 조별리그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27-24로 물리쳤고, 여자 핸드볼 한일전 통산 전적은 28승 1무 3패로 우리나라가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날 정유라(대구시청)가 혼자 11골을 넣었고, 김진이(부산시청)도 4골을 보냈다. 또 골키퍼 정진희(한국체대)는 세이브 8개로 방어율 42.1%를 기록하며 골문을 지켰다. 또 이 대회에 출전한 박현진, 김원정 심판 커플은 최우수심판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정상에 올라 올해 1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이 대회 상위 5개 나라가 올해 세계선수권에 나간다. 한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이 스페인 세계선수권에 아시아 대표로 출전한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26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구 조승민-안재현 WTT 남자복식 우승

조승민(국군체육부대)과 안재현(삼성생명)이 2021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대회에서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조승민-안재현 조는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 하에서 끝난 WTT 스타 컨텐더 도하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잉글랜드의 폴 드링클-리엄 피치퍼드 조를 3-1(11-7 4-11 11-9 11-4)로 제압하고 시상대 정상에 섰다. 조승민과 안재현은 28일 같은 곳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에서도 남자복식에 함께 출전한다. 삼성생명 소속으로 국내 실업 무대에서 자주 호흡을 맞추다가 조승민의 입대로 잠시 헤어졌던 두 선수는 모처럼 대표팀에서 국제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 선수들은 '일본세'에 밀려 다른 종목에서는 우승 타이틀을 추가하지 못했다. 여자복식 결승에서 전지희-양하은(이상 포스코 에너지) 조가 일본의 나가사키 미유-안도 미나미 조에 0-3(8-11 9-11 6-11)으로 졌고, 혼합복식 결승에서는 장우진(미래에셋증권)-전지희 조가 토카미 스케-하야타 히나 조에 1-3(6-11 11-3 2-11 8-11)으로 패했다. 여자단식에서는 전지희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준결승까지 올라 하야타에게 3-4(11-8 11-9 11-8 6-11 8-11 7-11 5-11)로 역전패해 결승 문턱에서 탈락했다. 기대를 모았던 신유빈(대한항공)도 일본 선수에게 제 일찌감치 16강에서 대회를 마감했다. 안도에 게 2-3(11-9 11-6 7-11 4-11 2-11)으로 졌다. 남자단식에서는 이상수(삼성생명)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4강까지 올라 다르크 요르키치(슬로베니아)에게 2-4(11-13 14-12 7-11 11-9 7-11 2-11)로 패했다. 이번 스타 컨텐더 도하는 2020 도쿄올림픽 뒤 한국 선수들이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였다. 이번 대회에는 최강 중국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다. 중국 최강자들이 총출동해 훨씬 어려운 경쟁을 펼쳐야 하는 아시아선수권은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피겨 이시형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추가 획득

네벨혼 트로피 대회 5위

한국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 2명의 선수를 내보낸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이시형(21·고려대)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네벨혼 트로피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최종 5위를 기록, 상위 7명에게 주어지는 베이징올림픽 티켓 획득에 성공했다. 이시형은 25일(한국시간) 독일 오버스트도르프에서 열린 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3.25점, 예술점수(PCS) 75.94점, 총점 149.19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 79.95점을 합해 최종 총점 229.14점으로 30명의 출전 선수 중 5위를 차

지했다. 한국은 지난 3월에 열린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차준환(고려대)이 남자 싱글 10위 자리에 올라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1+1장'을 획득했다. 한국은 올림픽 티켓 1장을 완전히 확보한 상황에서 나머지 한 장은 차준환 외의 다른 선수가 네벨혼 트로피에 나가 7위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할 수 있었는데, 이시형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2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국이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 2명의 선수를 출전시키는 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 피겨는 여자 싱글 2장, 남자 싱글 2장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시형은 첫 번째 연기 과제인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를 클린 처리하며 기본 점수 9.70점과 수

행점수(GOE) 1.94점을 챙겼다. 이어 3바퀴 반을 도는 트리플 악셀 점프는 착지 감점 요소인 쿼드러플 랜딩 판정을 받아 GOE가 0.53점 깎였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틀프 콤비네이션 점프는 언더로테이티드(under rotated·점프의 회전수가 90도 이상 180도 이하로 모자라는 경우), 이어진 트리플 루프는 쿼드러플 랜딩 지적을 받았다. 이시형은 체인지 풋 카벨 스핀을 레벨 4로 처리한 뒤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에 들어갔다. 그는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틀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다시 언더로테이티드 판정을 받았지만, 이어진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는 실수 없이 수행했다. 마지막 비점프 과제는 완벽했다. 스태프스퀀(레벨 4), 코레오시퀀스(레벨 1), 플라이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 4),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 4)은 모두 최고 레벨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3월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서 경기를 펼치는 이시형.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보이스
- 2관 보이스, 모가디슈, 인질 나의 흑역사 로맨티카
- 3관 상처와 텐 링즈의 전설
- 4관 기적
- 5관 기적
- 6관 보이스
- 9관 캔디맨
- 7관 씨네커풀 국장판 포켓몬스터: 영웅의 아이, 코코 모가디슈, 싱크홀
- 8관 씨네커풀 극장판 마이 리틀 프린세스: 새로운 희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1.10.1. (수) 10.5. (화)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2021. 10. 01.(금) ~ 10. 05.(화)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 8237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2021.10. 27.(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